

# “공론화가 유일한 해결책” vs “5km 내 주민 수용성 조사”

##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해법 놓고 '2차 갈등'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SRF(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놓고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최근 '시민 참여형 공론화'를 해결책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SRF 가동 저지에 나선 범시민대책위(범대위)가 이를 반대하며 '주민 수용성 조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난방용 온수와 급탕수 공급, 전기 생산판매 등 집단에너지 사업을 목표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총사업비 2412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해 지난해 12월 준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준공에 앞서 시험가동 당시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해 가동 저지에 나선 범대위를 중심으로 피부발진 등 건강 이상 증세 문제를 집중 제기한데 이어 광주권 생활 쓰레기로 만든 SRF 반입 등을 이유로 반발이 커지면서 1년 가까이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심화하고, 이에 따른 소송 등 갈등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지역 상생형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전남 6개 시군(나주·목포·순천·구례·화순·신안)의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

전남도·나주시·산자부

조만간 공론화 로드맵 설명회

범대위 “재가동 위한 명분 쌓기”

도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자부·전남도·나주시는 갈등 해결책으로 '공론화 추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광주시가 16년 간 지난하게 끌어왔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시민 참여형 공론화'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해결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건설 갈등을 해결했던 공론화도 한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대위는 공론화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 수용성 조사' 방식으로 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론화 추진은 결국 발전소 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발전소 1일 가동에 필요한 SRF연료 444t 중 97%가 나주시를 제외한 광주·순천·목포권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원료로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타 지역 쓰레기 처리방안을 놓고 나주시민들이 공론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대신 발전소를 중심으로 직접 영향권인 '반경 5km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용성 조사를 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문 대통령,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연합뉴스

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 등은 주민 수용성 조사 방식은 사실상 찬반 투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공론화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공론화 방식 도입'까지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공론화 방식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시민참여단 구성을 놓고 나주시민

으로만 할 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대상 지역인 6개 시·군 주민까지 포함할 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공론화 추진 쪽으로 방향이 결정되더라도, 공론화 추진의 필수 선행 조건인 '환경영향성 조사' 실시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나주=손영철 기자 ycsong@

## “고통분담으로 광주형 일자리 성공해야”

문대통령 경사노위 출범식 참석... “민주노총 참여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경영계·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두 개혁 주체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통 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노동계·경영계·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두 개혁 주체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하는 창구로서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비정규직·여성·청년) ▲경영계(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정부(고용노동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 ▲경사노위(위원장·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등 총 18인 체제다. 다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17인으로 출범하게 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지역구 챙기고 조직 재정비...광주 총선 입지자들 ‘몸풀기’

민주, ‘호남 탈환’ 조직 다지기  
평화, 현역의원들 지역구 상주  
바른, 위원장 임명 조직 재건

모습이다. 이와함께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해 체면을 구겼던 자유한국당도 중앙당 차원의 중량감 있는 인사의 출마를 추진하며 전국 정당으로의 자리매김을 꾀하고 있다.

22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역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연구원과 포퓰리즘 외곽 선거조직을 결성하고 있으며, 일부 정당은 지역위원장들을 새로 인선하는 등 물밑에서 총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총선 설욕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은 최근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정장에 도전했던 강위원 투계다 광산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 주도적으로 창립을 이끈 ‘더불어광주연구원’은 지난 21일 박수형 정치발전소 지방자치센터장 강의를 진행하는 등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더불어광주연구원에는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 전직 구청장도 활

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싱크탱크로 활동했던 ‘광주성장 더 큐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강 자문위원장은 또 최근 종합편성채널 정치 토크쇼 등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리고 있다.

최영호 전 남구청장도 최근 조직 강화에서 나서는 등 광복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 전 청장은 정치 입문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조직을 중심으로 세를 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승리에 이어 총선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배출해야 완벽한 승리가 가능해진다”면서 “각 지역구마다 출마 예정자들이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가 주요 정치 기반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조직 단속에 나섰다. 6·13 지방선거 이후 각 지역위원장들이 자리를 내려놓은 바른미래당은 최근 김동철 의원에게 시당 살림을 맡기고, 지난 21일엔 박주선 의원을 동남을 지역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지역구 재건에 한창이다. 또 오는 26일 전주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연 뒤 순창구 당대표 등 지도부가 광주를 찾은 예정이다.

민주평화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주말마다 지역구를 돌며 표발을 다지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기존 지지층의 이탈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의 경우 배우자까지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 지난 총선에서 서구갑에 출마했던 김명진 서구갑 지역위원장 등 일부 출마예정자들은 매일 지역구를 도는 강행군을 이어나가고 있다. /오광택 기자 kroh@kwangju.co.kr

###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 ▶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 모듈: LG·한화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Approved Partner Heating Instrument SIEMENS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